

“고통받는 환우에 귀 기울여주세요”

백혈병 국도순례 희망 프로젝트 참여 정영출씨

거리에서 만난 이웃들 따뜻한 격려 큰 힘 얻어 받은 것 값으려 사회복지사 된 딸에 희망 발견

“백혈병·소아암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환자와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목돈 준비까지 해내려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개인이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려 도움을 호소하려 국도순례 희망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백혈병·소아암가족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선물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2기 국도순례 희망 프로젝트’가 최근 광주·전남일원에서 열렸다. 2013년 9월 제주도에서 펼쳐진 첫 대회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땅끝 해남에서 출발해

목포, 여수, 광양, 순천, 화순, 광주를 7박 8일 동안 도보로 이동했다.

광주·전남 화순전남대병원 환아부모회 회장이자 백혈병에 걸린 딸을 둔 아버지로 서 도보순례에 동참한 정영출(57) 씨는 행사가 무사히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특히 몸이 성치 않은 참가자들이 하루 20여km를 걷는 강행군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출발한 지 4일째 되는 지난 1일 여수에서 유치원생들을 만났습니다. 여수 돌산 대교를 걷고 있는데 저희를 응원하며 함께 걷는 어린 학생들을 만났는데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돌산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용돈을 아껴 모은 동전이 담긴 저금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몸이 아픈 형, 오빠가 빨리 낫기를 바란다’며 전해준 저금통을 받아 들고 모두가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에게 작은 저금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쉬운 상황도 없지 않았다.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이 겪는 아픔을 알리려 공공기관에 갔을 때는 무관심한 공직자들 반응에 상처도 받았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거리를 걸으며 인정 많은 이웃을 만나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여수에서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었고, 순천에서는 손수 싸운 도시락을 들고 온 광주시민들 덕분에 훈훈하게 웃을 수 있었다. 화순에서 만난 군민들도 저녁 식사를 마련해주며 도보순례하는 일행을 격려했다. 모두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만남이었지만 그만큼 감동도 컸다.

정 회장은 거리에서 만난 고마운 분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환자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3년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란 생각과 함께 막대한 치료비 격정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순간 도움이 손길에 나타났고 딸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값으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을 보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기적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백혈병 소아암환자들은 최근 광주중앙로우체국을 찾아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대중에게 호소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부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조장협, 지역 장애인과 문화여행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장협이 지역 장애인과 문화여행을 떠났다. 12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생산을 담당하는 조장협의회 회원 30명은 지난 12일 (사)광주 장애인 문화협회(회장 정진삼) 회원 90명을 초청,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세계최초의 함포대전으로 기록되는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진포 해양 테마공원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에게 전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임동률기자xian@

고영엽 조선대병원 교수

세계 인명사전 7년 연속 등재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은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년판에 등재돼 7년 연속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고영엽 교수는 이전에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에 등재되며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그 업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고영엽 교수는 현재 조선대병원 심혈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광상동맥 중재시술 분야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 진료 및 연구에서 그 업적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전남기자협 체육대회 축구 우승

2014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 가을 체육대회에서 광주일보 지회(지회장 홍행기)가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보조운동장에서 17개 지회 회원과 가족 500여명이 참여해 열린 체육대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지원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과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물 이어달리기와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U대회, 대학생 U응원제

‘카이스트 응원단’ 대상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항식·윤장현)가 개최한 ‘대학생 U응원제’에서 ‘카이스트 응원단’(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문화 행사인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지난 11일 밤 광주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예선(20명 참가)을 통과한 전국 6개 대학 치어리딩 팀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100명의 대학생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현장 투표로 심사에 참가해 U대회의 의미를 살렸다.

전문 심사위원들과 대학생 심사단 100명으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카이스트 응원단’이 대상을 차지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다운업(광주 연합팀)·서강대 응원단은 우수상, ‘한양대·선문대·인하대 응원단’은 장려상으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카이스트 응원단’ 단장 나예은 씨는 “즐거움 무대를 마련해 준 U대회 조직위에 감사 드리며, 9개월 앞으로 다가온 U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세계개편과 지방재정’ 정책세미나

한반도미래연구원, 내일 5·18 기념문화센터

한반도미래연구원(이하 한미연)은 14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개편과 지방재정’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세계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복지, 지방재정과 증세’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은 이용섭(사진) 한미연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은 전 경기대학교 부총장, 고두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김기홍 광주경찰청 사무처장,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정남인 광주시 세정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한다.

이용섭 원장은 “부자감세의 철폐 없이 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는 역진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담배에 대해 국제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정부 세계개편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세미나에서 복지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대병원, 병원 벽화작업 학생에 장학금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은 최근 병원주변 벽화작업을 마무리한 조선대 미대 재능기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김중경 미술대학장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영순(전 5·18부상자회 회장)·설화심씨 장남 형준군, 박유권·최양근씨 장녀 아름양=18일(토) 낮 12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동창회

▲송원고 17회 총동창회 졸업 30주년 기념 추억의 밤=18일(토) 오후 5시 피엔 제이웨딩홀 062-361-6677.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백인 한마음콘서트=19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62-527-6611.
▲송원고총동문회(총동문회장 황명성) 한마음대축제=19일(일) 오전 8시 30분 송원대학교 운동장 062-384-7447.

종친회

▲문화 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재균)=14일(화) 오후 6시 30분 진미정 국장 062-374-1910.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월례회의=14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회장단 간담회=18일(토) 오전 11시 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 6대분중 시군구 총회장단 간담회=18일(토) 오전 11시 진주 강씨 총회관 대회의실 062-228-3368.

알림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영권실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족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

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복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페라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상춘동 원불교승국 062-232-7223~4.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

5000.

부음

▲윤국현씨 별세 영선(삼성생명)·미영·경희씨 부친상=발인 13일(월)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한채수씨 별세 상현(전남주식회사)·상국·명희·명심씨 부친상=발인 1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6.

상가 故인의 冥福을 봅니다	
101호 故락공남 남(남/55세) 子: 박민석 女/婿: 박미연 未亡人: 강영미 兄弟: 박원국, 박영국, 박남순 *발 인: 10월 1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영재 남(남/68세) 子/子婦: 김종민/홍나영, 김현중/선영숙 女: 김영숙 *발 인: 10월 1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 故문환암 남(남/80세) 子/子婦: 문환수/최영숙, 문환규/김미숙 女/婿: 문현숙/홍영수 未亡人: 이계순 *발 인: 10월 13일 *장 지: 영락 미암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최침희 남(여/93세) 子/子婦: 박원표/최향임, 박진모/김영희, 박찬도/임민자 女/婿: 박원희/김보원, 박진모/오광현, 박소정/한경남 孫: 박일준, 박정준, 박석현, 박정현, 오민수, 오진수 *발 인: 10월 14일 *장 지: 나주다시면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최창환 남(남/71세) 子: 최민철 女/婿: 최민정/홍창대 未亡人: 구영희 *발 인: 10월 13일 *장 지: 보성읍 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최경배 남(남/45세) 子: 최희영 未亡人: 오현희 兄弟: 최영배, 최영현, 최성배 *발 인: 10월 1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